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

이론적 개념화와 서울시 고령자의 경험*

Residential Environment Inclus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Older Peopl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nd Experiences of Older People in Seoul

이새롬** · 박인권***

이 연구는 도시 고령자가 직면하는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고령자 관점에서 ‘주거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서울시 고령자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포용성, 고령자 배제,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고령자의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핵심 차원으로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을 구성하였다. 실제 주거환경 맥락 속에서 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고령자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조사 및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주거환경 포용성의 다차원이 고령자의 정체성 형성, 관계성 회복, 삶의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배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태적·관계적 개념임을 확인해 준다.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고령자들은 집 근처에서 자발적인 활동 참여와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고립감, 상실감을 극복하고 성취감과 연대감을 확대하고 있다. 공간적 포용성 측면에서는 안정된 거주, 자유로운 개방 공간 경험, 독립적인 시설 접근을 통하여 정체성, 자율성, 연결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삶의 기회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주거환경 포용성의 다차원을 증진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연계된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고령자, 주거환경, 고령자 배제, 사회적 포용성, 공간적 포용성

* 이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4단계 BK21)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임(No.5120200113713).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후연구원(slee8@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교신저자, parkik@snu.ac.kr).

1. 서론

노년기는 필연적으로 삶의 다양한 부문에서 상실을 맞이하는 생애주기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생물학적 노화뿐 아니라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역할 상실, 사별 및 자녀의 출가로 인한 지지망의 축소 등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나이듦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 세대 간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위축과 무력감을 경험하기 쉽다. 이에 고령층은 신체, 사회, 경제, 정서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두된 고령자 배제 개념은 이들이 처한 문제를 단일 차원으로 설명하기 역부족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charf et al., 2005; Walsh et al., 2017). 이는 동태적인 시각에서 고령자 문제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이들이 사회로부터 유리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Barnes et al., 2006), 여러 차원의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거나 그 배제가 고착화되기 쉬우며(Kneale, 2012; 박현주·정순돌, 2012), 집단 내부의 격차 또한 심화한다는 점에서(Walsh et al., 2017) 위험성이 크다. 또한 고령자 배제는 건강 및 삶의 질 저하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밝혀져서(Kneale, 2012; Tong et al., 2011) 노년기 삶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령자 배제 논의에서는 공간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자에게 주거와 근린 배제의 중요성이 큼을 언급하고 있지만(Scharf et al., 2005; McLeod et al., 2017), 공간과 관련된 항목을 제한적으로 다루며 연구자마다 관심을 두는 부분도 상이하다. 그러나 고령자는 이동성과 자율성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공간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이들의 배제 문제는 주거지의 공간적 여건과 관련성이 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집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쉽게 이용할 만한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면, 고령자는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고 외부활동 참여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이웃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감소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은 저해되고 소외감, 무력감이 강화되어 참여 활동을 더욱 기피할 수 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더욱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지역은 배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공간으로 주목될 뿐 아니라(Gerometta et al., 2005),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도시 특성은 고령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워(한경혜·윤성은, 2009), 고령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고령자의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도시 포용성(urban inclusivity)’ 개념에 주목한다. 배제는 한 개인이 다차원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도시 포용성은 도시라는 구체적인 배경 속에서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설명하는 개념이다(박인권, 2015). 이에 따라 도시 포용성 개념은 고령층의 개인적 자원 및 역량 부족을 보완하고 삶의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이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 포용성 이론은 도시라는 지리적 규모에서 모든 사회적 취약층의 배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고령자의 삶을 대입하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배제와 소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범위를 고려하여 포용성 개념과 구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시 포용성의 관점을 ‘고령자’로 한정하고 그 범주를 ‘주거환경’으로 좁힌 개념을 제시하여, 도시 고령자가 직면하는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향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노년기에는 활동 범위가 집 주변으로 한정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화하므로 주거환경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다(Glass & Balfour, 2003). 또한 주거지의 장소 및 거주민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경험의 축적은 애착심, 소속감, 연대감 등을 통하여 삶의 안정과 성공적인 노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Golant, 1984; Byrnes et al., 2006; Wiles et al., 2011). 이에 고령자가 접하는 다양한 기회의 맥락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 주거환경에 주목하여 포용성의 범주로 설정한다. 이러한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의 개념화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 고령자들의 주거환경 경험과 인식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정책의 전개나 학술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과는 다른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Bowling et al., 2003). 하지만 아직 국내 연구에서 고령자의 서술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와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백옥미, 2016). 이에 우리는 도시 고령자의 실제적인 주거환경 경험 속에서 포용성의 의미를 선명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고령자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고령자 관점에서 주거환경 포용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그 의미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와 정책을 다루는 문헌을 검토한 이후, 만 65세 이상 서울시 고령자들과의 면담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길어진 노년의 삶에서 누구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도시 포용성 개념

도시의 포용성 또는 포용도시(inclusive cities)는 현대도시에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도시 비전이라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이는 도시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공간적인 기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 강화하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이해와 해결을 강조하는 대안이다(UN-Habitat, 2015: 2; World Bank, 2015: 8).

도시의 포용성 증진과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논의들은 1990년대부

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유엔 해비타트(1999)에서는 배제된 도시민의 문제를 논의하는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의 주제로서 ‘포용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재산,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포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UN-Habitat, 2002). 유사한 맥락에서 세계은행(2015), 아시아개발은행(2011) 등은 도시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꾸준히 이어갔다.¹⁾ 2016년에 개최된 ‘제3차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The 3rd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공유된 비전’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도시와 상통하는 개념이다(UN-Habitat, 2017: 5).

도시 포용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박인권(2015)의 연구에서는 포용도시를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배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참여할 ‘권능’과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정의했다(박인권, 2015: 108). 이에 이은 박인권·이민주(2016)의 연구에서는 도시 포용성의 구성개념과 지표체계를 제시하여 한국 도시의 포용성 진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도시 포용성의 핵심 구성차원으로 Gerometta et al.(2005)가 제안한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에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과 ‘공간적 개방(spatial openness)’을 더하여 4대 차원을 정립하고 이를 구성하는 11대 요소와 33개 지표를 제안하였다.

1) World Bank(2015)는 도시의 다차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공간적 포용성(spatial inclu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경제적 포용성(economic inclusion)의 세 차원을 포괄적으로 증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DB(2011)는 포용적인 도시 재개발(inclusive urban redevelopment)을 명시하면서 슬럼 정비를 통해 도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y)’를 이루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우리 도시의 포용성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확인된다. 박인권 외(2017)는 2016년에 제안한 지표체계를 실제 한국 도시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진단하고, 도시유형에 따라 포용성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역량형성과 참여 차원에서 양호하나, 공간적 개방과 상호의존 차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변미리 외(2017)는 서울형 포용도시 진단을 위한 지표체계를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의 세 차원에서 6개 영역, 34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사람 포용성 영역의 경제적 역량 지표에서만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Kwon & Choi(2021)는 전국 시군구 지역의 포용성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의 포용성이 낮으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포용성의 개념, 측정, 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한 집단의 관점에 근거하여 도시 포용성 개념의 구체화를 시도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사회적 배제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서 장애인, 빈곤층, 여성, 고령자 등 세분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된 것과 대조적이다(김안나 외, 2008; 노혜진·김교성, 2008; 박형진, 2008). 도시 포용성이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대상에 따라 놓여 있는 상황과 경험하는 문제가 상이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새롬·박인권(2020)의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용성’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들은 고령층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주환경 포용성을 ‘참여, 상호의존, 안전성, 접근성’의 네 차원으로 구성하고, 포용 수준이 증대할수록 고령자 정신건강이 향상되며 차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주환경의 포용성이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포용성 개념의 구성과 의미를 실제 고령자

의 경험을 통해 심도 있게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배제 및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 후 이새롬·박인권(2020)의 개념을 수정·보완하여 개념화하고, 고령자와의 면담 조사를 통해 개념의 실제적인 내용과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고령자 배제의 특수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용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고령자 배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배제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자원, 권리, 서비스의 결핍(lack)과 거부(denial)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가능한 정상적인 관계 형성과 참여의 불가능(inability)”을 의미한다(Levitas et al., 2007: 9). 이는 정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빈곤이나 하나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박탈과 차별화되는데,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다차원적이고(multi-dimensional) 동태적인(dynamic) 개념이다(Bergham, 1995).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은 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 기회의 박탈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이 크므로, 은퇴 이후의 생애주기에 있는 고령층은 배제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다(Walsh et al., 2017; Scharf et al., 2005). 노년기에는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의 공식적 역할이 축소되며, 사회적 관계성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직면한다. 또한 생애과정에서 노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회의 제약이 누적되고 노년기에는 이를 극복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동안 고령자의 부양을 담당해 온 가족 체계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노년기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화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고령자는 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령자가 경험하는 소외와 고립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 노년기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배제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Scharf et al., 2001). 이러한 고령자 배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연대와 통합에 미칠 영향력도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Walsh et al., 2017).

고령자 배제 개념의 핵심 영역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는 노년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Scharf et al., 2005; Barnes et al., 2006; Kneale, 2012; Walsh et al., 2017). 그 가운데서 Walsh et al.(2017)은 앞서 살펴본 Levitas et al.(2007)의 개념을 토대로 고령자 배제를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자원, 권리, 물질, 서비스의 부족과 거부,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가능한 정상적 관계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포함한 복합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Walsh et al., 2017: 83). 그리고 기존의 고령자 배제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물질, 서비스, 사회관계, 참여, 근린, 사회문화’의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 틀을 제시했으나 차원 간 연관성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MacLeod et al.(2017)는 고령자 배제의 동태성과 다차원성을 반영하는 개념 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제, 참여, 관계, 서비스, 근린, 건강, 차별’의 7개 차원을 제시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주목하여 확대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참여, 관계, 서비스는 배제의 핵심 차원이고, 경제와 근린 배제는 그 원인이 되며, 차별은 모든 차원을 강화하는 위협에 해당한다. 특히 건강 배제는 최종 결과이자 참여, 관계 배제를 연유하는 원인이 되어서 고령자 배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고령자 배제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54%가 하나 이상의 배제를, 20%가 둘 이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재성·김혜진, 2019). 또한 한국 복지 패널자료를 통해 중고령자의 배제 진입요인을 분석한 박능후·최민정(2014)에 따르면 가구주의 낮은 교육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할 때 배제 진입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적 배제 이론에서 공간 차원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박인권, 2015) 고령자 배제 연구에서는 공간과 관련된 논의는 제한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공간적 요인을 고령자 배제의 한 차원으로 규정하지 않거나(전병주·최은영,

2015), 주택 문제에 한정하고(김안나 외, 2008; 박현주·정순돌, 2012; 박능후·최민정, 2014; 최재성·김혜진, 2019), 기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MacLeod et al., 2017). 일부 연구자들은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배제 위험이 더 크고(Barnes et al., 2006), 특히 빈곤이 집중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각종 도시 서비스 접근 제약의 위험이 가중된다고(Scharf et al., 2005)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지역 특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고령자 배제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안전,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환경은 비교적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Kneale, 2012; 김안나 외, 2008; 최재성·김혜진, 2019). 채광, 냉난방, 구조 등 주택의 물리적 조건은 다른 연령층에게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고령층에게는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Levitas et al., 2007; MacLeod et al., 2017). 또한 노년기에는 근린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 지역에서 더 오래 거주한다는 점에서 근린 배제가 강조된다(Walsh et al., 2017; 배지연 외, 2006; Scharf et al., 2005). 하지만 근린 배제는 근린에서 소속감, 안전함, 신뢰 등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 소외감을 경험하는 상태로 설명되어(Scharf et al., 2005; Barnes et al., 2006) 사회적 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의료, 금융, 대중교통 등 기본 서비스 배제는 금전적 어려움, 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제시되며(Barnes et al., 2006; Kneale, 2012; 배지연 외, 2006), 관련 시설의 공급 수준이나 접근 경로 등 물리적 환경 특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지지 않았다.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하는가’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삶의 기회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Byrnes et al., 2006) 기존 고령자 배제 논의에서는 주거환경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3) 고령자 주거환경의 함의와 고령친화도시 개념

누구나 특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나이 들어가므로 일상생활의 토대가 되는 주거환경은 노화 과정에 더 쉽게 또는 더 어렵게 적응하도록 하는 맥락을

제공한다(Golant, 1984). 무엇보다 주거환경은 삶의 안식처로서 심리적 안락함과 삶에 대한 통제감, 자율성을 제공하고 존재론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장소이다(Shaw, 2004). 이에 열악하거나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는 기본적인 삶의 통제감과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훼손되어 삶의 질이 감소한다(박성복, 2011; 남기민·남현정, 2013). 노년기에는 사회적 책임이나 가정 내 역할이 감소하여 무력감과 소외감을 경험할 위험이 큰데, 주거지를 기초로 형성하는 이웃 관계망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을 보완·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Chao, 2011; Stahl et al., 2017). 또한 근린시설의 배치나 보행환경과 같은 주거지의 물리적 특성 또한 고령자의 건강, 활동성, 삶의 질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ke et al., 2007; 박효숙·이경환, 2019). 이처럼 노화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체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주거환경과 고령자 배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도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밀도 높은 환경, 일반화된 익명적 관계 등의 특성은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경혜·윤성은, 2009).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서비스가 근거리에 집약되어 있고, 이동성 제약을 보완할 만한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여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uffel et al.(2012)는 고령자 삶의 질을 위한 도시환경의 기회와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협하는 도시의 특성으로는 정체성 확보와 이웃 관계 지속의 어려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열악한 주택, 범죄 우려, 급속한 변화 등이 있다. 반면에 고령자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는 도시의 특성으로는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의 풍부함, 외부적 위협을 막기 위한 근린 내부의 단결,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과 다양한 참여 활동의 기회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령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시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고령화와 도시화의 이중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WHO(2007)는 ‘고령친화 도시 및 근린(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개념을 제시하였다(Plouffe & Kalache, 2010). 고령친화도시 는 ‘활동적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서비스, 물리적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된다(WHO, 2007: 1). 여기에서 활동적 노후는 고령자를 수동적·수혜적 존재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주체적 존재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부공간과 건물, 교통수단, 주거, 사회 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 및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사회 돌봄 및 의료서비스’의 8개 차원과 66개 하위영역에서 169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의 사용자를 건강하고 젊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접근하면서(WHO, 2007: 72), 이들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여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supportive and enabling)” 것을 환경의 역할로 설명한다(WHO, 2007: 75). 이는 고령자에 국한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연령대의 거주자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참여의 범위는 신체적·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신 등을 포괄하는 모든 삶의 분야에 대한 것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고령친화 도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폭넓은 데 비해 ‘친화(friendly)’나 ‘활동적(active)’의 용어는 다소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 고령친화 도시 논의를 생태체계적 관점이나 적주성(livability)과 같은 다양한 이론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Menec et al., 2017; Stephens et al., 2018). 따라서 고령친화 성 달성과 평가에 집중하기보다 고령자의 다차원적 기회 확장과 삶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을 위한 새로운 개념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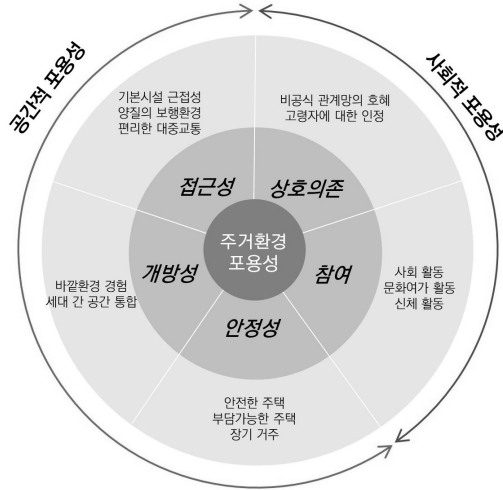
3.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의 개념화

이 연구에서는 도시 고령자의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향점으로 ‘포용성’을 논의하고자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성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고령친화도시의 핵심 주제의 하나로 사회적 포용성이 포함되고 있지만(Scharlach & Lehning, 2013; Plouffe & Kalache, 2010) 여기에서 포용성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의 극복과 인정과 존중의 강화라는 의미로 협소하게 설명되고 있다. Buffel et al.(2012)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함을 언급하였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²⁾ 따라서 우리는 고령자 배제를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환경 구축을 위한 비전 공유를 위하여 포용성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삶의 공간적·사회적 배경이 크게 축소하는 노년기를 반영하는 새로운 범주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제는 국가, 도시, 근린 등 다중의 지리적 범위에서 논의되는데(Murie & Musterd, 2004), 배제의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알맞은 규모 설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박인권, 2015). 노년기에는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집 근처에서 보내고 근린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Glass & Balfour, 2003). 또한 고령자 배제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생산의 영역보다는 여가, 호혜와 같은 재생산 영역의 중요성이 강화되므로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과 같은 고령자 정책들이 거주지에 초점을 두는 것도 이러

2)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도시민을 위한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령자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과 상통한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가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회관계와 구조,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고령친화성’이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하고 이의 당위적 달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포용성은 고령자 배제를 초래하는 관계와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다차원적 과정을 강조하는 동태적·관계적·다차원적 개념이다.

<그림 1>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의 개념 틀



한 맥락에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 고령자 포용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범주로 ‘주거환경’을 설정한다.³⁾

본 연구에서는 도시 포용성과 고령자 배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 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이는 도시 포용성의 구성 차원을 정립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되 (박인권·이민주, 2016), 그 대상을 ‘고령자’로 한정하고 범주를 ‘주거환경’으로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⁴⁾ 주거환경은 개인을 둘러싼 공간 및 사회적

3) 이새롬·박인권(2020)의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정주환경 포용성’ 개념을 정립한바 있다. 정주환경은 개인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거환경의 뜻과 상통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주거환경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주거환경 포용성’의 용어를 쓰고 있다.

4) 박인권·이민주(2016)에서 도시 포용성의 핵심 차원으로 ‘역량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으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역량형성’ 차원은 소득,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조건으로서

환경의 여건을 모두 포함하므로 <그림 1>은 크게 공간적 포용성과 사회적 포용성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포용성은 ‘참여, 상호의존’의 두 차원, 공간적 포용성은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회적 포용성을 설명하는 핵심 차원으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참여’와 ‘상호의존’을 구성한다(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이민주, 2016).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가 있다. 도시 포용성에서 참여 차원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의 활동 기회를 포함하여 설명하며(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이민주(2016)의 연구에서는 단순 친목 등의 활동보다 시민사회 활동 참여가 더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력이 쇠퇴하는 노년층의 경우 친목, 여가, 산책 등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는 삶의 질에 미치는 함의가 크므로(Sugiyama & Thompson, 2007), 여기에서 참여는 집밖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바깥활동을 폭넓게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참여뿐 아니라 참여 기회 의 생산 및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환경에서 제공되는 여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공공공간이나 근린시설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상호의존’은 구성원들 사이의 분업과 같은 공식적 관계와 상호호혜와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박인권, 2015),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는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크게 축소하면서 사적인 관계망에서 인정, 연대, 수용 등의 의미가 부각되므로 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주거지 내에서 비공식적 관계망은 노년기 공식적인 역할의 감퇴, 가족 구성원의 축소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긍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경험은 고령자 포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반

대로 나이로 인한 차별, 무시 등은 참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저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배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이웃과 사적인 네트워크와 호혜, 연령 차별을 하나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Walsh et al., 2017; Barnes et al., 2006; 배지연 외, 2006; 김안나 외, 2008).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하려 한다. 고령자의 생활 범위를 고려하여 도시보다 미시적인 ‘주거환경’으로 축소하고 있는 만큼 포용성의 공간적 차원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년기에는 삶의 터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욕구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짐을 고려해서(Wiles et al., 2011) 물리적·경제적·시간적 측면에서의 ‘안정성(security)’을 갖춘 주거를 확보하는 것을 공간적 포용성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으로 제시한다. 기존 공간적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지불 가능한 저렴한 주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개념에서는 신체적 기능 저하 및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는 노년기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장기간 거주 또한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택에서의 배제가 노년기 건강, 발달, 활동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루는 고령자 배제 관련 문헌들과(Levitas et al., 2007; Kneale, 2012; 김안나 외, 2008),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문헌들을(Wiles et al., 2011; Park & Ko, 2020)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포용성의 한 차원으로서 ‘개방성(openness)’을 구성한다.⁵⁾ 이는 신체적 역량 쇠퇴와 이동성의 제약으로 폐쇄된 공간에 머물기 쉬운 고령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벽을 최소화해야 함을 의

5) 박인권·이민주(2016)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포용성을 대신하여 ‘공간적 개방’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불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보다 작은 ‘주거환경’을 범위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개방성의 의미가 다소 상이한데, 여기에서 개방성 차원은 고령자의 공간적 고립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집 밖의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성취할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미한다. 고령자들은 신체적인 제약뿐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이나 심리적인 소외감으로 인해 ‘갈 만한 공간’이 상당히 희소해지고(한경혜·윤성은, 2009), 사적 공간으로 구획화된 도시환경에서 고령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invisible)’ 상황에 이르게 된다(Buffel et al., 2012). 이에 공원, 가로,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 등과 같이 집 근처에서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바깥 환경 경험의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 간 이용 공간이 계층화되지 않고 공유하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 차별을 방지하고 보편적인 사회의 일원임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Gardner, 2011; 이지연·한경혜, 2017) 이러한 내용도 개방성 차원에 포함된다.

공간적 포용성의 마지막 차원으로는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시한다. 해비타트 III의 포용도시에서는 ‘모두를 위한 동등한 접근(equal access for all)’을 강조하며(UN-Habitat, 2015), 변미리 외(2017)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포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생활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깨끗한 물, 양질의 주택, 기본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근린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둔다. 노년기에는 이동의 자율성이 상당히 감소하므로 근린시설까지 먼 거리, 위험한 접근로 등이 물리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의 성취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의료시설, 구매시설 등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양질의 보행환경, 대중교통시설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러한 내용은 고령친화도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WHO, 2007; Plouffe & Kalache, 2010).

지금까지 논의한 주거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다섯 차원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과 연결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구성개념에 따라 고령자 관점에서 포용적인 주거환경은 ‘생애 후반까지 다른 거주민들과 상호의존하고 사회, 여가, 신체 등의 다양한 활동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지속하며, 개방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표 1> 주거환경 포용성의 구성차원과 관련 연구

선행연구		사회적 포용성		공간적 포용성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
A	박인권·이민주 (2016)	참여	상호의존	공간적 개방 (저렴한 주거, 외부지향, 공간통합)		
	변미리 외 (2017)	시민참여		생활인프라 접근성		
	손지현 외 (2016)	참여	상호의존성	주거 안정	공간 보편성·안전성	
	World Bank (2015)	사회적 포용성		공간적 포용성 (저렴한 토지,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		
	Lian et al. (2022)	사회적 포용성 정치적 포용성		공간적 포용성 (저렴한 주택, 공공공간, 공간적 정의, 토지이용)		
B	배지연 외 (2006)	시민활동 문화활동	사회적 관계 노인차별			사회적 서비스
	김안나 외 (2008)	노동시장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	주거		
	박현주·정순돌 (2012)	문화여가활동	사회적 관계 정서적 배제			의료서비스 접근
	최재성·김혜진 (2019)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	주거		
	Scharf et al. (2005)	시민 활동	사회적 관계			기본 서비스
	Barnes et al. (2006)	시민활동 문화활동	사회적 관계			기본 서비스
	Kneale (2012)	시민활동 문화활동	사회적 관계	적절한 주거		지역편의시설 대중교통
	Walsh et al. (2017)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차별		근린·커뮤니티 (부분)	서비스·시설 (부분)
	MacLeod et al. (2017)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차별		환경·근린 (부분)	서비스·접근 (부분)
	C	WHO (2007)	사회 참여 시민 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주거	외부환경
정순돌·김미리 (2017)		지역사회참여 환경		주거편의환경		서비스환경

주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차원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 비교적 유사한 항목에 배치하였으며 경제, 교육 등 주거환경과 관련성이 낮은 영역은 위의 표에 제시하지 않음.

주 2: A는 도시 포용성 관련, B는 고령자 배제 관련, C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연구에 해당함.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 포용성을 구성하는 다차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배제 또는 포용은 여러 문제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관련된 다차원성과 동태성이 특징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Arthurson & Jacobs(2003)는 주거 배제가 또 다른 차원의 배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안정적인 일자리, 적절한 교육,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축소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주거환경 포용성의 구성차원은 다른 차원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는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경에서 벗어날 기회가 많지 않아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 참여, 상호의존의 다차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포용성은 다차원적인 고령자 배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태적·관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서울시 고령자의 주거환경 포용성 분석

1)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4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고령자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 고령자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이론이나 문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도시 고령자 주거환경 경험에 대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와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경험, 인지, 감정 등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파악하기 적절한 방법이다.

서울시 내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인 자치구 다섯 지역 가운데에서 지역 내 노인복지관의 사전 승인 획득이 가능한 A 자치구를 최종 조사지로 선

<표 2> 연구참여자 특성

대상자	연령	성별	점유형태	주택유형	동거인	거주기간	주거지원	경제활동
어르신1	91	남	자가	아파트	자녀부부	60년	—	X
어르신2	92	남	임차	다세대 반지하	독거	60년	주거급여	X
어르신3	78	남	임차	다가구 반지하	독거	8년	전세금지원	X
어르신4	82	여	임차	다가구 1층	독거	30년	주거급여	O
어르신5	78	여	임차	단독 반지하	독거	40년	주거급여	X
어르신6	82	여	임차	영구임대주택	독거	20년	주거급여	X
어르신7	80	남	임차	다세대	독거	5년	전세금지원	X
어르신8	87	남	자가	단독	배우자	60년	—	O
어르신9	72	여	자가	다세대	배우자	40년	—	O
어르신10	76	여	자가	다세대	미혼자녀	10년	—	X

정하였다. A 자치구에 위치한 B 노인복지관에 방문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021년 10월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총 10명의 고령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하기 위하여 B 노인복지관 1층 공용공간에서 3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IRB No.2110/002-009).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면담 시행 이전에 연구 목적 및 진행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비밀 보장, 녹취 및 기록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어르신 1~10’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81.8세로 나타나며, 70대부터 9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5명으로 동일하며, 해당 자치구 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약 30년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가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와 단독은 각각 2명이었는데,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도 3명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10명 가운데 4명으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수도권 고령자의 자가점유율(67.7%)에 비교

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강미나 외, 2021: 20). 가구 유형은 혼자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6명)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형태는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2명).

면담의 내용은 고령자가 주거환경에서 포용 또는 배제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질문은 “현재 주거환경에서 언제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하는지, 만족감과 편안함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주거환경에서 살기 희망하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을 제시하고,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연구 자료를 체계적인 분류와 주제의 발견을 통해 해석하는 연구 방법으로(Hsieh & Shannon, 2005), 양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료의 외연적·내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최성호 외, 2016). 국내 연구에서 도시지역 고령자의 주거환경 경험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한경혜·윤성은, 2009) 귀납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는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적절하며 원자료에서 코드(code)로, 코드에서 주제(theme)로 단계적으로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코드는 전사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주요 내용을 잘 드러내도록 생성되며, 주제는 코드들 사이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기초로 범주를 줄여서 분류한 결과이다(Hsieh & Shannon, 2005). 코드의 생성은 Cresswell(2017: 212)을 참고하여 관습적 방법을 통해 자료로부터 직접 도출하였으며 코드에 대한 설명과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자료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삼각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서술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풍부한 묘사를 제공하였다.

<표 3> 질적 내용분석의 범주화

상위주제	하위주제	코드
주거환경 포용성의 경험과 의미	안정적 정주를 통한 정체성 유지	변하지 않고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거주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자 고향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면과 계속 거주
	외부환경 경험을 통한 연결감과 개방감 충족	집안에서의 외로움, 무료함을 떨치기 위한 외출
		외부환경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유 시간 소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고령자 시설
	사회적 역할 상실을 대체하는 참여 활동	삶의 활기를 찾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활동
		다른 사람과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경제적 활동 참여의 즐거움과 성취감
	이웃과 상호의존에 기초한 문제해결과 긴장해소	외로움과 소외감을 잊게 하는 이웃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을 서로 돕는 관계
		멀리 사는 자녀에 대한 의존을 완화
주거환경 포용성의 저해 경험	부적절한 주거로 인한 고충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택
		한정된 주거 부담 능력으로 인해 제한된 선택 결과
		주거급여 단절로 인한 어려움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	도시 개발로 인한 삶의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선택 제한
		고령자가 갈 만한 공간의 양적 부족
	외부활동에 대한 구조적 장벽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외진 위치
		좁고 위험하고 경사가 급한 보행환경
		이웃 관계에서 갈등과 무시
	사회적 교류 단절로 인한 소외감	나이로 인한 차별과 존중받지 못한 경험
		세대 간 공유하는 공간의 부족

2) 서울시 고령자의 주거환경 포용성 분석 결과

면담자료를 토대로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사한 주거환경 경험은 총 23개 코드로 도출되었으며, 코드들은 다시 8개의 하위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주거환경 포용성의 경험과 의미’와 ‘주거환경 포용성의 저해 경험’이라는 2개의 상위주제로 귀결되었다.

(1) 주거환경 포용성의 경험과 의미

연구참여자가 체감하는 주거환경 포용성의 핵심적 의미로는 “안정적 정주를 통한 정체성 유지”, “외부환경 경험을 통한 연결감과 개방감 충족”, “사회적 역할 상실을 대체하는 참여 활동”, “이웃과 상호의존에 기초한 문제 해결과 긴장 해소”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다. 곧 고령자 관점에서 주거환경의 포용성은 주거지의 공간적·사회적 여건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개인 차원의 배제를 극복하도록 지원·보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첫째, 둘째 항목은 주거환경의 공간적 포용성과 관련되며, 나머지 항목은 주거환경의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된다.

① 안정적 정주를 통한 정체성 유지

연구참여자들에게 오랜 시간 거주해 온 동네는 “고향과 똑같이” 편안하고 익숙한 “정이 든” 장소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지금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떠날 수 없는 “터전”으로 설명하였다. 신체적·사회적 조건 및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나이 들의 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살아온” 주거지에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독립적·자율적인 삶의 영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Wiles et al., 2011; Park & Ko, 2020). 또한 주거급여와 같은 공적 지원체계는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수의 참여자가 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가 미흡하여 노령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감면하고 있다. 어르신 3의 경우 노숙을 하거나 고시원을 옮겨 다니다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되면서 현재 주거지에 정착하고 인근의 복지관을 찾게 되며 느끼는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주거 안정에서 배제된 고령자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안정된 거주지 마련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독려하고 심리적 안녕을 높이는 등 삶 전반의 안정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딸이 하나 있거든. 딸이 자꾸 옆에 와서 살라고 하는데 싫어. 여기가 내 터전이고, 친구가 있으니까. …… 아파트 가나 어딜 가나 우리는 (이웃) 친구들, 동생들 자주 보고 그게 좋은 거지. _ **어르신 4**

내 집이 아니고 LH에서 도움 받아서 전세 살아요. …… 전에는 고시원에 살다가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시원보다 훨씬 낫지. 고시원은 사람들이 땡강도 부리고 시끄럽고. 여기가 맘이 편해요. _ **어르신 3**

연구참여자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희망은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언급되어서 주거지를 공유하는 이웃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고령자들이 알고 지내는 이웃들과 주거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속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며, 거주 공간의 안정성이 이웃과의 상호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저 멀리”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보다 현재 주거지 내에서 계속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어르신 4). 공공임대주택은 한정된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 및 이웃 관계망의 단절을 초래하여 “아주 고립되어” 노년기를 보내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어르신 5). 노년기에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주거비 절감이나 안전한 주택에 대한 필요 못지않게 기존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이 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 적절한 주거 제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회관계 단절의 위험이 높아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권역과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집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임대아파트라도 나는 A구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먼 데 사면 (이웃과) 떨어지니깐. 그건 내 소원이지. 오래 살 수 있는 집. 집이 켈 소중해. 다른 데 외따로 가면 더 외롭잖아. 그때 가면 아주 고립되는 거잖아. _ **어르신 5**

② 외부환경 경험을 통한 연결감과 개방감 충족

연구참여자들은 집 밖을 벗어나 외부환경을 탐색함으로써 집안에서 느끼는 외로움, 답답함, 무료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있다. 이들은 집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동거하는 가구원이 없고 방문하는 지인이 적기 때문에, 집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이 “TV만 보는” 공허한 장소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떨치기 위해 일단 집을 벗어나 “어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걷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주변을 구경하는 행태가 확인된다. 이 같은 외출은 특별한 목적지가 있다기보다 바깥 환경을 탐색하고 여유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된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을 경험함으로써 독립성, 자율성을 체감하고 신체적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외출 시 이동 수단으로 주로 보행을 선택하고 있고, 거주하는 동을 벗어나서 인근의 동을 넘나드는 장거리 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참여자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A 자치구를 벗어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언급해서 생활 반경은 행정동을 다소 벗어나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나오는 게 편해.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집에선 주로 TV하고만 놀지 할 일이 없어. _

어르신 2

나는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차 안 타려 하거든. 내가 ○○동 살잖아. ○○시장까지 다 걸어 다녀. 여기서 가려면 버스정류장 네 개인데 걸어. ‘운동이다’ 하고. _ **어르신 5**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동네에 다 가까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살기에 더 편한” 것으로 언급된다(어르신 1, 4, 6).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병원, 은행, 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도시지역과 비교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고령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문만 열면 오는” 개방성 높은 지역시설로 확인된다.⁶⁾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고,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들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오며, 일부는 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 방문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B 복지관 1층의 카페는 용무가 없어도 잠깐 쉬었다 가거나,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관이 “친정집” 같은 장소로 묘사되는 것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년배를 만나 외로움을 달래고 맘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르신 7의 경우 현재 거처를 결정하는 데 복지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내 친정집이에요. 아주 좋아요. …… 이사 오게 된 동기는 누가 이 복지관 한번 가보라고 가르쳐주었어요. 여기 잘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온 거예요 이 복지관 때문에. _어르신 7

③ 사회적 역할 상실을 대체하는 참여 활동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주거지 내에서 산책, 이웃집 방문, 경로당 이용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제 더는 사회활동 못하는” 고령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보완하고 신체적 활동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6) 복지관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은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한 끼 4,000원에 식사가 제공되며, 월 5,000원 정도 비용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제약과 관계없이 공통되게 어떤 형태이든지 활동 참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령자들의 활동은 복지관을 매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르신 6의 경우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이나 여가 활동이 반드시 목적이 된다고보다 “여기 나오면 다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나 소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다수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사전 구성하여 제공하고 고령자들은 사후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도시 포용성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된다(UN-Habitat, 2002).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여가 및 교육 활동의 기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복지관에서는 고령자가 목소리를 낼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봉사단 등 일부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기 회의를 시행하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어르신 자치회를 의견 개선의 통로로 활용하는 등 주체적인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발견된다. 또한 고령자의 실제적인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당사자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이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운영되며 참여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포용성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복지 및 정주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령자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스스로 삶을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개해 준 어린이집에 청소하러 가는 데 좋아. 그전에는 동네 여자들과 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일자리 마련해 줘서 너무 고마워. 일하는 건 즐겁고 좋아. _어르신 9

교통정리 활동 아침에 해. 매일 아침에. 내가 신청했어. 혼자 사는데 생활비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생활 능력이 없으니깐 그거라도 보탬이 되니깐 계속해야지 일은. _어르신 5

어르신 5와 9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자가를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어르신 9의 경우에는 집에서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일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삶의 활력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에 “즐겁고 좋”다고 표현하며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80대인 어르신 5는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생계에 “보탬이 되니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가 무조건 긍정적인 노후에 기여한다기보다 자발성과 의미 부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④ 이웃과 상호의존에 기초한 문제해결과 긴장 해소

연구참여자들은 주거지를 기반으로 이웃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농촌지역보다 이웃과 왕래 빈도가 낮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참여자 다수가 이웃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스스럼없는”, “아주 친한”, “훈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2의 경우, 가족보다도 이웃이 “자주 보니 더 좋은” 존재로 표현하였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해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르신 4의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듯이, 이웃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아플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근황을 묻는 등 상호돌봄으로써 일상생활의 위기와 외로움을 극복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과 같이 살아야지. 외로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속상하면 밥맛도 없지, 사람 만나기도 싫지,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야. …… 누가 오면 반갑잖아. 파스를 붙이려도 혼자 못 붙이니까 사람이 오면 붙여 달라 하고. …… 이웃하고 매일 보지. 옆집 할머니 혼자 있는데 (친하게) 잘 살아.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빈 그릇으로 가지고 올 때도 없고. 이웃이 최고 좋아. _ 어르신 4

또한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식한테 손 안 내밀고”, “부담 주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동질적인 이웃들과 상호의존하며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까이 사는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 누군가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하므로(Wiles et al., 2011),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완화하고 독립적이지만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한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 친지 등의 혈연관계망은 규범적 연대라면 이웃 관계망은 비공식적 호혜에 기초한 연대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임을 자각한다는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2) 주거환경 포용성의 저해 경험

질적 내용분석 결과 파악된 두 번째 상위주제는 ‘주거환경 포용성의 저해 경험’이며, 이를 구성하는 중심개념으로는 “부적절한 주거로 인한 고충”,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 “외부활동에 대한 구조적 장벽”, “사회적 교류 단절로 인한 소외감”이 도출되었다.

① 부적절한 주거로 인한 고충

자가를 보유하지 못하고 공적 지원으로 주거비를 충당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하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 연한이 오래되거나 반지하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추위, 벌레, 곰팡이 등 취약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스스로 개선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어르신 3, 4).

또 다른 참여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계단이 있는 주택에서 겪는 고층에 대해 토로했는데, 다리가 안 좋아서 이층에 사는 이웃집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 온 물건을 봉지로 주고받는” 경험에 관해 설명하였다.

집이 오래되어서 손볼 때가 많지요. 화장실도 오래되어서 변기도 물이 새고, 보일러가 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뜨시지 않아. 이불 두 개 덮고 자요, 전기장판 깔고. 가장 불안한 거는 집이 고장 나면 내가 고쳐야 하니.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려 해. 나는 영구임대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 놔줘. 어떻게 보면 얽매어서 사는 거야. _

어르신 3

이 같이 노년기 안락한 생활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난방시설 등 편리한 환경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주택 유형으로 언급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어르신 5의 대화를 통해 한정된 비용으로 인해 “어디 비싼 데는 못 가”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한정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⁷⁾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아 공간적 포용 수준이 낮는데(박인권 외, 2017) 특히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고령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환경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어 당장 주거비 부담을 감면했더라도 여전히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어르신 3), 주거급여가 중단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어르신 5).

어디 비싼 데는 못 가잖아. 여기는 싸니깐 (살 수 있는 거지). …… 아파트가 좋지. 겨울에 안 춥고. 근데 우리가 되겠어? …… 딸이 병원비가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해

7) 2021년 서울시의 주거급여 상한액은 1인 기준 월 310,000원이다.

버리니깐 소득이 생기잖아. 그 이득으로 주거비를 또 안 주더라고. 그래서 또 좀 힘들지. _어르신 5

②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

연구 대상자인 A 자치구는 서울시 내에서 저렴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지역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도시 개발 사업이 초래하는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에 관해 연구참여자들은 “살기 곤란해지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집 근처에 오래된 상점과 익숙한 가로가 사라지는 등 도시 환경의 빠른 변화 속도는 고령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charf et al., 2005). 특히 어르신 4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장기간 거주했던 동네를 원하지 않게 떠나야 했던 상황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웃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 사는 주택 역시 재개발 사업이 예상되어 또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였다. 오랜 시간 경험과 기억이 쌓여 익숙한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고령층에게 큰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삶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자가에서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공급될 주택 입주를 위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집을 뺏기는 느낌”이 들고(어르신 8), “어수선한 동네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난다(어르신 9).

(전에 살던 데) 다 헐려서 철거하잖아. 11년을 살았는데 철거해서 거기로 간지. ……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사서 세를 내는 거라. 여기도 아파트 들어오면 헐린다고 하는데 걱정이지. _어르신 4

A구 대변혁의 시대인데 직접 관계는 없으니깐 변하는구나 그러죠. …… 재개발할 것도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떠나야 하고 손익을 또 따져야 하고 동네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는 수가 있으니깐. _어르신 8

그리고 고령자들은 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 공급과 환경 개선 등이 본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에 대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정부에서 하는 일”로 표현하여 무관심과 체념이 확인되고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도시계획의 의견수렴이나 정보 공유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도시 변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포용성 증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며(UN-Habitat, 2002/2015), 도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은 고령자의 일상적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 문제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고령자는 정보 습득이나 신체적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또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여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우므로, 고령자의 필요와 욕구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르신 10의 경우 도시의 물리적인 개발뿐 아니라 주택시장 불안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양과 질이 감소하여 “가족끼리 가까이 사는 게 더 어려워”지거나 “오래 살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한 근심이 확인된다.

③ 외부활동에 대한 구조적 장벽

연구참여자들은 집 밖에 나와 개방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외부환경과 밀착하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시간을 그저 걷는 데 활용하는 이유는 “갈 만한 공간”이 마땅히 없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시민 대다수가 편하게 이용하는 근린시설에서도 고령자들은 높은 비용이나 판매 방식 등에서 경제적·심리적인 장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공간의 상품화와 구획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과 행위를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과(박인권·이민주, 2016) 고령자 개인의 경제적·신체적 역량의 부족이 겹쳐져서 사유화된 공간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령 어르신 6은 낮은 시력으로 인해 마트에서 표시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물어볼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아 불편한 경험을 토로했고, 어르신 3, 4의 경우 동

네 구멍가게나 식당에 대해 가격이 비싸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장소로 언급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고립감을 떨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지만 폐쇄성이 높은 사적 공간들을 피해 가로, 공지 등 공공공간에서 주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마트는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얼마인가 글자가 안 보여. 가르쳐 달라고 하면 ‘쓰여 있어요’ 하고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가. 그건 어디 가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못 사고 마트를 못 가. 할머니들이 파는 데가 제일 편해서 동네 시장 가. 지하철 타도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저기’ 그러고 말아. 근데 저기가 어딘지 알아? 앞이 안 보이는데. _ 어르신 6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사람이 있는 곳은 잘 안 가지”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연령층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꺼리는 반면, 고령자 전용시설인 복지관, 경로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고령자의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의 배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자들이 제한적으로 주어진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자 전용시설은 세대 간 공간적 분리의 초래하고 다른 연령층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저하시켜 결국 세대 간 통합을 방해하고 고정관념과 차별을 강화하는 역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한경혜·윤성은, 2009). 아울러 고령자 전용시설의 경우에도 동네마다 “노인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확인되어서(어르신 8),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자마다 이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갈만한 공간의 양적 부족을 넘어서 연구참여자들은 시설 접근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다고 공통으로 지적한다. 특히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어려움, 좁은 골목길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행로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로 각종 시설의 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Rigolon et al., 2018), 이는 근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포용성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면담이 진행된 B 복지관은 주거지 내 구석진 곳에 있으며 보차혼용의 좁은 골목길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조건이다. 고령자를 배려하지 못한 보행환경 여건은 “걸어 다니기 힘든”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성이 맞물려서 이동성 제약을 가중하고 참여의 실제적인 성취를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은 도시에서 제공하는 자원,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배제와 고립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참여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과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만족하고 “셔틀버스가 없으면 못 오게 될 것”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⁸⁾ 이에 참여자들은 복지관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안전하고 느리게 걷기 좋은 길”로 접근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언덕배기 같은 데 말고. 여기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래. ‘갈딱고개 올라온다’라고. 이런 데 말고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좋겠어). …… 특히 이 동네는 너무 공간이 없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도보로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없어. …… 여기에도 그늘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_ **어르신 10**

④ 사회적 교류 단절로 인한 소외감

연구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현대도시와 아파트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예전 같지 않게 인색”하거나 “배려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상호 의존의 결핍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고령자나 거주기간이 짧은 고령자에게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만난 동년배와 때때로 대화를 나누지만 지속해서 교류하는 동료는 없으며 “그 안에 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어르신 3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일절 교류가 없는” 단절된

8) B 복지관은 인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세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상태이며, 동네에서 경험한 차별로 인해 억울함,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층을 토로하였다.

인심이 안 좋아, 동네가. 내가 수급자니깐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웃하고 절대 일절 교류 없어. 옆집에 누군지도 몰라. …… 젊은이들이 우리 집 대문을 때리고 나오라고. 하도 억울해 가지고 밖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파출소에서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그랬어. _ **어르신 3**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맺고 있는 호혜적 관계는 동년배들 사이에 한정되며 청장년층과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참여자들이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기회는 공공기관 직원,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참여자들은 청장년층에 대해서 “상대가 안 되는”, “볼 일 없는”, “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마음이 짠하고 속상”하다며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청장년층을 “동네에서 볼 일이 없지”라고 언급되고 있어 일상적 생활환경 내에서 세대 간 공유하는 공간의 축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어르신 9, 10의 경우, 청장년층과 교류할만한 접점의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대 간 공유하는 시설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은 고령자가 밀집한 거주지역은 “낙후”되고 “활력”을 잃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자녀의 연령층이 낮고 손자녀 돌봄 등으로 인해 교류 빈도도 높기 때문에 파악된다. 다양한 연령층이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관용과 이해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이지연·한경혜, 2017). 아울러 고령자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나 가정 내 돌봄 대신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장소’를 통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Gardener, 2011), 세대 간 계층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희소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젊은이들 더불어 살아야지요. 젊은 사람 살아야 형평성이 맞지. 노인만 살면 너무 낙후되어 있지. 죽은 것처럼……. 더불어 모일 수도 있고 한쪽엔 어른들, 한쪽엔 아이들 있어서 함께 쓰는 시설, 노인들만 쓰는 거 말고. _ **어르신 10**

5. 결론

이 연구는 도시 고령자가 직면하는 배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령자 관점에서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도시화와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지향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고령자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생활의 배경이자 각종 기회의 성취와 긴밀히 연결된 일차적 환경으로서 주거환경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도시 포용성, 고령자 배제, 고령친화 도시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의 다섯 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를 서울시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입하여 개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자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무엇보다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의 향상으로 구성된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이 고령자 개인의 역량 제한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배제를 완화하여 안녕한 노후에 이르기 위한 지향점으로서 적절함을 보여준다. 서울시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공간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적 개방을 통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이듦으로 인한 외로움에 대처하고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노년기 삶의

욕구가 건강, 돌봄과 같은 복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생애 후반까지 안정적인 이고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연계를 지속하는 것이며 주거환경 포용성은 이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더욱이 주거 안정과 이웃과 상호의존, 접근성과 참여 활동, 개방성과 세대 간 교류 등 여러 차원 사이에 연관성이 크고 확대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되어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포용성을 증진하는 통합적·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고령자의 주거환경 경험에서 드러난 포용성의 기회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사회적 포용성의 참여 차원에서 여가, 사회, 경제활동 등은 삶의 활기와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소외감을 높이고 포용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주거지에 기초한 활동 참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지만, 자발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근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에 대해 고령자가 주체적인 의사나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하다. 상호의존 차원에서는 고령자 대다수가 동년배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극복한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지만, 청장년층과의 상호작용이 미흡하고 남성이나 거주기간이 짧은 고령자들은 동년배와의 교류에서도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간적 포용성의 안정성 차원에서 서울시 고령자들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주거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포용성 강화를 경험하며, 반대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배제를 경험한다. 주거급여는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감면하지만 높은 주거비로 인해 열악한 주택환경에서 머물며, 지원금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개방성 차원에서는 집 가까이에서 가로, 시장,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기회로, 갈 만한 장소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확인된다. 고령자는 집 안에 느끼는 고립감을 떨치기 위해 외출 욕구가 상당히 크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상품화, 획일화된 여가문화시설, 세대 간 계층화 등으로 인해 갈 만한 장소가 희소하고 선택의 다양성이 낮아 박탈감이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서울은 비교적 생활 필수시설이 풍부하고 가까이에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시설의 외진 입지와 미흡한 보행환경은 고령자의 실질적 참여 활동을 위축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내용은 서울시 고령자의 주거환경 포용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 먼저 고령자 포용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주거환경 안정성의 강화이다. 현재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원 방식은 적절한 주택환경, 이웃 관계의 유지, 지원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노년기에 기존 생활권역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주택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가능한 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와 더불어 적절한 주택환경을 갖춘 주택 물색 및 주택의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입임대주택 등을 더욱 다양한 입지에서 공급하여 기존 생활권역 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욱 확대된 시각에서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다면적으로 확보하여 노년기 삶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자 주거환경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고령자 여가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시설을 공급할 때 이동성의 제약이 큰 고령자를 우선하여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생활권 계획 등에 고령자의 의견과 필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시설의 배치는 보행환경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연계하여, 구조적으로 참여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장거리 이동의 자유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율성의 제약을 극복하도록 대중교통 이용 시 고령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상호의존성과 활발한 참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이웃 관계망과 다양한 활

동 참여는 사회적 연계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집 주변에서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비공식적인 상호돌봄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며 여기에서 소외되는 고령자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세대 간 상호 교류가 상당히 미약하여 무관심과 차별로 이어지는 우려가 있는 만큼, 나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고 존중과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관점에서는 거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장소로서 공원, 도서관 등과 같은 지역시설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고령자 배제, 도시 포용성,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여 고령자 주거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포용성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령자 배제 관련 연구들이 공간적 차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도시 포용성 관련 연구들은 범 취약층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며 고령친화성의 결과와 평가 위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고령자 관점에 입각한 주거환경 포용성의 개념과 차원을 규명하였다. 또한 서울시 고령자와 면담조사를 통해 주거환경 포용성이 노년기 정체성 유지, 사회적 욕구의 성취, 심리적 안정감 형성 등에 실제로 기여한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주거환경의 포용성 확대를 위한 기회와 한계를 진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포용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한 면담조사는 단일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에 국한되어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대체로 외부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의 계층화에 대한 우려와 일괄된 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지만 경제적 수준이나 신체적 여건 등의 차이에 따른 집단 내 이질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주거환경의 과제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고령자 주거환경 포용성의 개념과 차원을 규명하였으나, 포용 수준을 결정하는 조건, 차원 간 확대되는 과정, 삶에 미치는 결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2.08.10.

심사완료일: 2022.09.21.

게재확정일: 2022.09.22.

최종원고접수일: 2022.09.26.

Abstract**Residential Environment Inclus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Older Peopl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nd Experiences of Older People in Seoul**

Lee, Sae Rom · Park, In Kwon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residential environment inclus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older people as a vision for coping with their multidimensional exclusions, as well as to explore the specific experiences and meanings of older people in Seoul. We propose to construct the concept in five dimensions: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secur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based on the literature related to urban inclusivity, older people’s exclusion, and age-friendly citie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ividual interview data of 10 older people in Seoul to clarify the concept in the context of their actual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lusive environment helps them to overcome exclusion and to achieve identity formation, relationship restoration, and life realm expansion. In terms of social inclusion, the participants overcome feelings of isolation and loss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around their homes and interdependence with neighbors, which increases their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olidarity. In terms of spatial inclusion, they expand opportunities for positive aging by living in a secure environment, freely experiencing open spaces, and easily accessing neighborhood facilities, allowing them to fulfill their identities, autonomy, and sense of connection.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enable older people to sustain an independent and socially connected life as community members by reinforcing the multi-dimensional inclusivity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 Older People, Residential Environment, Exclusion of Older People, Social Inclusivity, Spatial Inclusivity

참고문헌

- 강미나 외.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세종: 국토연구원.
- 김안나 외.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남기민·남현정. 2013.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3호, 395~420쪽.
- 노혜진·김교성. 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종단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167~196쪽.
- 박능후·최민정. 2014. 「중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325~354쪽.
- 박성복. 2011. 「노인의 주거관련 요인과 삶의 만족도」.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731~760쪽.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제25권 제1호, 95~139쪽.
- 박인권·이민주. 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4호, 109~158쪽.
- 박인권·이민주·홍철·임인선. 2017. 「한국 도시의 포용성 진단과 유형별 특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111~130쪽.
- 박현주·정순돌. 201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영국고령화패널(ELSA) 분석」. 《한국노년학》, 제32권 제4호, 1063~1086쪽.
-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제15권, 69~94쪽.
- 박효숙·이경환. 2019.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보행시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녹번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54권 제2호, 109~121쪽.
- 변미리 외. 2017.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 서울연구원.
- 배지연·노병일·곽현근·유현숙. 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3호, 7~28쪽.
- 백옥미. 2016. 「노년기 거주지의 경험과 의미: 노인복지주택 거주자와 지역사회 거주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4호, 267~301쪽.
- 손지현·김중구·황선아. 2016.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부산고아역시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51권 제6호, 5~21쪽.
- 이새롬·박인권. 2020. 「정주환경 포용성이 고령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지역연구》, 제36권 제4호, 3~23쪽.
- 이지연·한경혜. 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 학», 제51권 제2호, 1~30쪽.
- 전병주·최은영. 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 주거 점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77~107쪽.
- 정순돌·김미리. 2017.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권 제2호, 121~141쪽.
- 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제2권 제1호, 127~155쪽.
- 최재성·김혜진. 2019. 「노인의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 분석: 다중적 배제의 잠재집단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권, 193~224쪽.
- 한경혜·윤성은. 2009. 「도시노인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103~121쪽.
- ADB. 2011. *Inclusive Cities*.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Arthurson, K. and Jacobs, K. 2003. *Social Exclusion and Housing (AHURI Final report, 51)*. Melbourne: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 Barnes, M. et al. 2006.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ELSA)*. London: Office for the Deputy of Prime Minister.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Room, G. (Eds.).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 Berke, E. M. et al. 2007. "Protectiv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Walkability and Depression in Older Men."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5, pp.526~533.
- Bowling, A. et al. 2003. "Let'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s of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People Aged 65 and Over."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56, No.4, pp.269~306.
- Buffel, T., Phillipson, C. and Scharf, T. 2012. "Ageing in Urban Environments: Developing 'Age-friendly' Cities." *Critical social policy*, Vol.32, No.4, pp.597~617.
- Byrnes, M., Lichtenberg, P. A. and Lysack, C. 2006. "Environmental Press, Aging in Plac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f Urban Older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Vol.23, No.2, pp.50~76.
- Chao, S. F. 2011. "Assessing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Chinese Adul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Ageing & Mental Health*, Vol.15, No.6,

pp.765~774.

- Cresswell, J. W. 2017.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질적 연구의 30 가지 노하우』. 한유리 역. 서울: 박영스토리.
- Gardner, P. J. 2011. "Natural Neighborhood Networks: Important Social Networks in the Lives of Older Adults Aging In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Vol.25, No.3, pp.263~271.
- Gerometta, J., Haussermann, H. and Longo, G. 2005. "Social In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Urban Governance Strategies for Inclusive City." *Urban Studies*, 42(11), pp.2007~2021.
- Golant, S. M. 1986. "The Influence of the Experienced Residential Environment on Old People'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3(3-4), pp.23~50.
- Glass, T. A. and Balfour, J. L. 2003. "Neighborhoods, Aging, and Functional Limitations." in Kawachi, I. and Berkman, L. F. (Eds). *Neighborhoods and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sieh, H-F. and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9, pp.1277~1288.
- Kwon, Y-H and Choi, Y. 2021. "Analysis of Spatialization and Determinants of Urban Inclusiveness." 《국토계획》, 제56권 제3호, 60~77쪽.
- Kneale, D. 2012. *Is Social Exclusion Still Important for Older People?*. London: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UK.
- Park, S. and Ko, Y. 2020.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My Place": Rural Korean Elderly People's Perspective of Aging in Place." *Asian Nursing Research*, 14, pp.97~104.
- Plouffe, L. and Kalache, A. 2010. "Towards Global Age-Friendly Cities: Determining Urban Features that Promote Active Aging."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Vol.87, No.5, pp.733~739.
- Levitas. R. et al.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 Liang, M. et al. 2022. "Mapping Key Features and Dimensions of the Inclusive City: A Systematic Bibliometric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Ecology*, Vol.29, No.1, pp.60~79.
- MacLeod, C. et al. 2017. "Re-thinking Social Exclusion in Later Life: A Case for a New Framework for Measurement." *Ageing & Society*, Vol.39, No.1, pp.1~38.
- Menec, V. H. et al. 2011. "Conceptualizing Age-Friendly Communities." *Canadian Journal on Aging*, Vol.30, No.3, pp.479~493.
- Murie, A., and Musterd, S. 2004. "Social Exclusion and Opportunity Structures in European

- Cities an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Vol.41, No.8, pp.1441~1459.
- Scharf, T. et al. 2001. “Social Exclusion and Older People.” *Education and Ageing*, Vol.16, No.3, pp.303~320.
- Scharf, T., Phillipson, C. and Smith, A. E. 2005.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in Deprived Urban Communities of England.”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2, No.2, pp.76~87.
- Scharlach, A. and Lehning, A. 2013. “Ageing-Friendly Communities and Social Inclus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eing and Society*, Vol.33, No.1, pp.110~136.
- Shaw, M. 2004. “Housing and Public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Vol.25, No.1, pp.397~418.
- Stahl, S. T. et al. 2017. “Living Alone and Depression: the Modifying Role of the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ging & Mental Health*, 21(10), pp.1065~1071.
- Stephens, C. et al. 2019. “Livable Environments and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An Ecologic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Vol.59, No.4, pp.675~685.
- Sugiyama, T. and Thompson, C. W. 2007. “Outdoor Environments, Activity and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Conceptualizing Environmental Support.”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9, No.8, pp.1943~1960.
- Tong, H. M. et al. 2011.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ve Symptoms: Elderly Chinese Living alone in Shanghai,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26, No.4, pp.349~364.
- Rigolon, A., Toker, Z. and Gasparian, N. 2018. “Who Has More Walkable Routes to Parks?: An Environmental Justice Study of Safe Routes to Parks in Neighborhoods of Los Angeles.” *Journal of Urban Affairs*, Vol.40, No.4, pp.576~591.
- UN-Habitat. 2002.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Concept paper* (2nd Edition). Nairobi: UN-Habitat.
- UN-Habitat. 2015. *Habitat III Issue Papers 1 Inclusive C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 UN-Habitat. 2017. *New Urban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 Walsh, K., Scharf, T. and Keating, N. 2017. “Social Exclusion of Older Persons: a Scoping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European Journal of Ageing*, 14, pp.81~98.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Geneva: WHO.
- Wiles, J. L. et al. 2011.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52, No.3, pp.357~366.
- World Bank. 2015. *World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Washington DC: GSURR.